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계란 한 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토지 구입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설비와 투자가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농장관리의 철저한 기록으로 항목별 경영분석 관리를 반드시 실시하여 농장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고, 우리농장의 모순점을 한가지씩 개선해 나가는 경영체야 말로 무한경쟁시대에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규모화보다도 경영이다. 어떻게 경영하느냐는 새로운 경영관리의 개념이 농장마다 도입되어야 한다. 농장주는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하며, 경영자로서 변화되어야 하

고, 농장의 중장기적인 계획경영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농장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

계란 한 알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생산자가 먼저 생각해야 하며, 항상 내가 생산하는 계란은 나와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서 위생과 품질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산자는 우리 계란의 품질향상에 혼을 다하여 노력하고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란시장이 완전자유화 되었지만 액란의 수입량은 미미한 실정으로 경쟁국에 비하여 위생적인 계란을 생산할 때 우리 채란계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장관리 및 경영관리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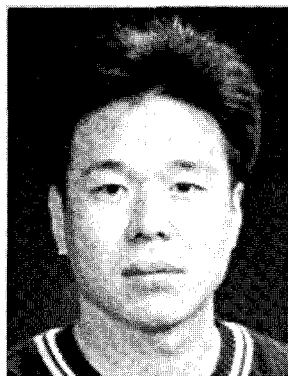
경영자의 자세를 갖추길 바라며

한 만 혁 무지개농장

요즘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다. 바로 MBC-TV 월, 화 드라마인 '영웅시대'이다.

현재의 초일류 기업이 된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격동기의 역사를 재미있게 극화해서인지 시대적 흐름을 잘 묘사해서인지 나로서는 상당히 호감이 가는 드라마이다. 비록 허구를 가미하긴 했어도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했

고 주인공이 기업가라는데 아마 매력을 느낀 듯하다. 아마 어른들이 보시기엔 '그래 저때는 그랬었지' 하시며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이해하시겠지만 어른들로부터 늘 들어왔던 격 동기 시절이었음에도 우리 같은 젊은 세대는 직접 체험할 수 없었고 이미 안정된 사회구조의 틀에서 성장한 우리세대로써는 그러한 시대극을 보아도 어쩔 수 없는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비록 시대적인 환경의 차이는 크다 하더라도 나와 같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바로 기업의 흥망성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면 된다' 라는 경영자의 의지와 긍정적인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 운이 좋았어', '그때는 충분히 기회가 많은 시대였어', '그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하며 성공한 사람들(경제적인 성공)의 자질보단 주위 환경과 '운'을 부러워 말을 자주 하며 또 듣곤 한다. 하지만 이 얘기대로라면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성공해야 했을 것이 아닌가? 결국 그러한 얘기들은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회를 잘 포착하여 성공한 사람은 시대적 흐름을 잘 읽고 정보의 수집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지 결코 운은 아니다. 따라서 나는 '운'도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조조를 상대로 적벽대전에서 화공으로 대승할 수 있었던 것은 책에서처럼 하늘에 빌어 그저 운 좋게 바람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 지역에는 이맘쯤이면 특이하게 동남풍이 분다'라는 정보를 적절히 이용하였기 때문이라. 이처럼 공명이 신격화 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익힌 천문과 지리와 정보를 방법에 적절히 응용해서인 것 아니겠는가?

나는 가끔씩 몇 년 전 화재와 부도를 맞아 농장이 흥망의 기로에 놓인 때를 생각하곤 한다. 당시에는 누구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리란 확신은 감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다시 일어섰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위기 극복을 위한 온 가족의 의지와 당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결책과 신념을 제시해주신 아버지의 지혜가 있었다. 금전적인 투자가 아쉬웠지만 새롭게 투자해주는 이도 없었고, 담보를 제공해 주는 이도 없었으며, 대출 능력은 더더욱 없었다. 농장의 수익구조가 좋아 현금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그 당시 만약 내가 경영자였다면 어땠을까? 당시의 생각으로 아마 현금을 찾아 사방을 헤메다가 지쳐 포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다.

요즘들어 양계협회 게시판엔 비판과 불만과 욕설로 가득찬 글들이 부쩍 많이 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안도 없는 비판,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 협회에 대한 불만, 타 주체에 대한 불만 등등 수도 없이 많다.

과거에 1차 산업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소위 사회적 약자에 가까웠다. 따라서 양계인들 대부분은 정책의 수혜자라는 수동적인 의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 또한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남의 탓을 하기 일쑤며 다른 농장 경영자의 조언보단 자신의 고집을 먼저 내세운다. 좀처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다.

양계도 하나의 사업이다. 사업가라면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을 바탕으로 조직적

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보장을 받기 보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판하기에 앞서 모든 문제를 자신으로부터 찾으려는 냉철함도 갖춰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물질이 아닌 모두

마음의 자세인 것이다. 지금, 아니 앞으로 우리 양계농가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정책이나 자금보다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즉 경영자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양계**

불황기때 바뀐 계약서 개선되길 바라며...

권 기 창 대성농장

원래 나는 도시에서 자라 농촌에 대한 동경심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농장을 경영하시게 되면서 점차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중학교때부터 휴일엔 아버지 일을 돕기도 했고 일이 없더라도 쉬는날엔 농장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다. 고등학교도 물론 자연계를 택하였고 대학교도 축산계통의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축산계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 축산계열의 여러대학을 알아보던 중 축산업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알게되었고, 3년간의 수학 끝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장을 경영한지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처음 양계업에 발을 들여 놓을 당시 양계업계는 최고의 불황기였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수입육 등으로 인해 육계는 병아리 값도

안되는 시세를 유지했고 그로 인해 병아리 입추 회전이 늦어졌고 병아리가 입추 되었다 하더라도 낮아진 수수료로 인해 전과 같은 소득은 생각도 못하게 되었다.

육계는 대부분의 농가가 계열화 위탁 사육을 하기 때문에 불황기 동안 낮아진 수수료나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은 직접적인 소득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몇 년간의 불황기를 지나 지난 여름부터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다들 호황기라 얘기 하지만 불황기때 바뀐 위탁 계약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회사마다 사

